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4호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마음을 움직이는 힘

글 /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스포츠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에 주력

“최속현범 19일부터 시행...스포츠인권보호 강화”

“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지원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근절 추진 과제 발표 등”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마음을 움직이는 힘

경험과 과정, 그 자체가 본질

이번 호부터 <서울스포츠>에 '베터 투모로우(Better Tomorrow)'라는 새로운 코너의 연재를 맡게 되었다. 코너 제목이 '더 나은 내일'인 건 아마도 오늘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스포츠와 인권을 엮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 한 해 동안 이 지면에서 다룰 내용이다. 연재를 마칠 즈음 더 많은 독자가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한다.

글 홍덕기

## 마음을 움직이는 힘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소울(soul)>의 주인공 '조'는 기간제 음악교사다. 그는 학교의 정규직 자리와 유명 재즈 밴드의 합주 기회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로 조의 영혼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영혼들이 머무는 세계로 이동한다. 조는 이곳에서 육체가 없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꼬마 영혼 '22'를 만난다. 22는 오랜 세월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지구에서의 삶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하며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조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구에 냉소적이었던 22의 태도는 그의 영혼이 조의 몸에 빙의해 지구에서 소소한 일상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바뀐다. 피자를 맛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일 혹은 청명한 하늘 위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는 일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드디어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한편, 22의 도움으로 자신의 몸을 되찾고 지구로 돌아온 조는 유명 재즈 밴드와의 합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토록 원하던 재즈 뮤지션으로서 성공을 이루어냈지만, 왠지 마음이 공허하다. 음악이 곧 삶이었던 조는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며 느끼던 몰입의 세계가 생계와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을 예감하며 그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와 22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소소한 일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shutterstock

### 스포츠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영화 <소울>은 그동안 잊고 있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됨을 말해준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포츠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땀 흘리며 같이 스포츠를 즐기는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우리는 이성이 아닌 감각을 통해 몸을 움직일 때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는 평범한 사실을 놓칠 때가 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스포츠는 우리의 일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일상 속 스포츠에 의미를 부여할 때, 성취는 스포츠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매 순간 마주하는 행복을 즐기고 삶의 총만함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전문 스포츠에 입문하는 경우, 어느 순간 전문 운동선수를 자신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즐거움을 잊게 되기도 한다. 또한 승리, 우승, 메달, 상급학교 진학 등 목적 달성에만 매몰되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정신력 강화 또는 훈련의 수단으로 정당화시키며 이에 복종하고 견뎌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몸을 움직인다고 마음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는 스포츠에서 무엇을 잊고 있었던 걸까?

### 인권친화적인 스포츠를 향해

흔히 스포츠를 삶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영화 속 조가 목적을 달성한 후 허탈감을 느끼듯, 스포츠도 승리에만 목표를 둘 경우 인간은 객체화되며 승리 이후의 삶은 공허해진다. 경기는 삶의 아주 작은 일부이며, 삶은 경기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스포츠의 주체는 인간이다. 스포츠가 인권친화적이라는 말은 목적보다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것을 말한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혹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의 의지와 열정으로 잘하든 못하든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하는 것 말이다. 인권친화적인 스포츠로의 참여는 스포츠를 통해 경쟁뿐 아니라 도전, 참여, 배려, 인권 등 다양한 삶의 가치를 배우는 장이 된다.

그럼, 인권친화적인 스포츠는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스포츠가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때다. 조는 어린 시절 아빠 손에 이끌려 처음 재즈 피아노 선율을 들었을 때 느껴본 전율을 기억해내고, 음악 그 자체에 빠져 의미를 찾는다. 스포츠 역시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설렘과 호기심을 잘 간직하고, 스포츠 그 자체에 몰입해야 마음이 움직인다. 스포츠에서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포츠의 도구화를 경계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스포츠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레게 하는가?”

---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 최속현법 19일부터 시행 스포츠인권 보호 강화

고(故) 최속현 선수가 피해를 입은 철인3종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를 공포하면서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 선양' 삭제, 불공정·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수, 체육 지도자, 체육 단체 임직원 및 체육 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고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 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 보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조사 대상(▲ 신고자, ▲ 피해자, ▲ 피신고자, ▲ 관계자·기관) 및 방법(▲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 자료 제출 요구, ▲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하면 센터가 직권 조사를 하거나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센터의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 사무소도 3개 설치한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센터는 119건을 신고받아 364건을 상담했고, 2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 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체육 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도 확대했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 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센터는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체육 지도자 및 체육 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등을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해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airjr@cbs.co.kr](mailto:airjr@cbs.co.kr)

# 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 與, 스포츠윤리센터 지원 강화

최근 프로배구 선수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체육계 폭력 사태에 정치권이 제도개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당은 체육계 인권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예산 지원 강화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재차 불거진 체육계 폭력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 관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다음 날에도 "폭력이 근절되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대안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통화에서 대책 방향을 묻자 "첫째는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 같다. 또 이런 부분을 장관이 자주 챙겨봐야 할 것 같다"며 "또, 대한체육회도 (해당 사안이) 스포츠윤리센터로 넘어갔다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체육회가 더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일들이라 현재 손쓸 방법은 없지만 미래에 또 안 일어나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철저히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느껴야 한다. 성적 지향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는 문체부 산하 스포츠 인권 전담 기관이다. 설립 이후 마련된 이른바 '최숙현 법'에 따라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과 직권 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 권한과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다만 여전히 센터 내부에서조차 채용비리, 직원 간 갑질·폭언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 장 계속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은 센터의 운영 기능과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해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체육계 폭력 대책 방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전문조사관, 상담원, 인권감시관 등 인력 보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53억 원)보다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이를 어겼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체부 장관이 비위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체육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0만 원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심사보고서에서 문체위 전문위원도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요청에 몇몇 체육단체 등이 협조를 거부해 개정안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한 바 있다.

정부도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 상반기 내에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대표팀 선발 제외 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기존 자격 정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인권교육, 의식 개선, 인권감시관 운영 등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논의 당시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사항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인권 옴부즈맨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별로 인권감시관을 배치해 자치단체에서 체육계 인권 실태를 사전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체육계 일각에선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기존 엘리트 육성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대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 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unon89@tf.co.kr](mailto:unon89@tf.co.kr)

#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학폭 근절 과제 발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권한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19일, 연이어 발생하는 체육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 올 상반기 초·중·고 학교운동부 대상 인권감시관 집중 운영

인권감시관은 수시로 체육 현장을 점검하는 역할로, 인권 감시관 인력을 구성해 5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충청, 경상, 호남·제주 등)의 현장 점검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면담을 실시. 권역별 체육단체 소그룹 컨설팅 실시 및 직권조사 사안 발굴 등을 시행하고 상시 점검을 확대·강화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

## ▲ 학생선수의 학부모 9,000명 대상 약 7개월간 실태조사 실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설문 및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학생선수 학부모의 인권의식 및 학생선수 인권 실태를 집중 분석할 예정.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학생 선수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확립을 도모할 것.

## ▲ 학교운동부 주제 및 대상별(선수, 지도자 등) 교육 콘텐츠 개발, 맞춤형 교안 제작

교육 방법으로는 실시간 스트리밍의 비대면 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대면 교육)을 실시해 강사와 교육생 간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 학교운동부 선수·지도자의 원활한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하반기 중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실시. 교육의 전문성 함양 및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 ▲ 상담·신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족·주변인 및 조력인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 지원 및 필요 시 의료·법률·상담·수어통역 등 적극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된 법령에 의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는 것도 금지됨.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센터는 해당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윤리센터는 학교운동부의 폭력신고 시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

# 주간 스포츠 인권 관련 소식

체육계 학폭 논란에...스포츠윤리센터 SNS 모니터링 강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600&key=20210222\\_22019006531](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600&key=20210222_22019006531)

문체부, 인권 보호 강화...배구연맹 "학폭 연루자 영구제명"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619223293775>

"스포츠계 폭력 근절·인권 향상 비롯 현안 산적"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22100136>

대구시, 끊이지 않는 스포츠 비리 특별대책 마련

<http://tk.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21/2021022100058.html>

대한하키협회, 스포츠윤리 담당 부회장직 신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1005500007?input=1195m>

'스포츠 학폭 안 돼' ...광주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육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1\\_0001346158&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1_0001346158&cID=10201&pID=10200)

[의정 언박싱] 스포츠 인권보장 전담기구, 왜 필요한가?

<http://www.ifm.kr/news/301111>

이기흥 "스포츠 폭력사건은 체육인 공공책임"

[https://www.ytn.co.kr/\\_ln/0107\\_202102191701482491](https://www.ytn.co.kr/_ln/0107_202102191701482491)

황희 장관 "체육계 학폭,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제 역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158700007?input=1195m>

경기도, 인권행정 총괄할 로드맵 구축... '스포츠 인권침해' 근본 대응방법 주목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938>

"이래서야 신고하겠어요?" 운동부 폭력 신고 늘린다지만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247](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3247)

"나도 맞았다" ...학폭 피해자들이 침묵을 깬 이유 [이슈+]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99933H>

#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forsportsreform@gmail.com](mailto: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sports-cm@daum.net](mailto:sports-cm@daum.net)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